



## 부 록

- 
- 
1. 설문지
  2. A 재개발구역 설문조사 결과
  3. B 재건축구역 설문조사 결과

## 1. 설문지

### 주민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기초과제로 「서울시의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지역종합진단지표의 구축 및 활용방안」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제는 물리적 환경 정비가 아닌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측면의 통합적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의 종합적 진단 지표를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설문내용은 연구목적 외에 어떠한 다른 용도로도 이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설문은 조사원이 질문을 읽어드리면 답해주는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본 조사에 성의껏 답변해 주시어 서울시 주거지재생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2월 1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계획연구실

연구진 일동

대상지 : \_\_\_\_\_ 설문 응답자 성별 : 남 / 여

연령 :

1. 귀하께서는 이 지역 거주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_\_\_\_\_년 \_\_\_\_\_월부터)

2.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동네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3.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동네의 단점/불편한 점 또는 개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_\_

4. 귀하가 거주하고 계신 동네의 지인은 몇 분이나 계십니까?

\_\_\_\_\_명

▶ 지인이 있는 경우

4-1. 주로 모임을 갖는 곳은 어디입니까?

\_\_\_\_\_

4-2. 모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_\_\_\_\_

5. 동네 주민들과의 모임(반상회, 친목회, 계 등)이 있으신가요?

☐ 예 (모임성격과 모임 횟수 : \_\_\_\_\_)

☐ 아니오

6. 귀하께서 지금 거주하시는 주택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_\_\_\_\_



## 2. A 재개발구역 설문조사 결과

A 재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32명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주민설문은 인구 및 가구 특성,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사항, 주민 간 유대감 및 커뮤니티 결속력 등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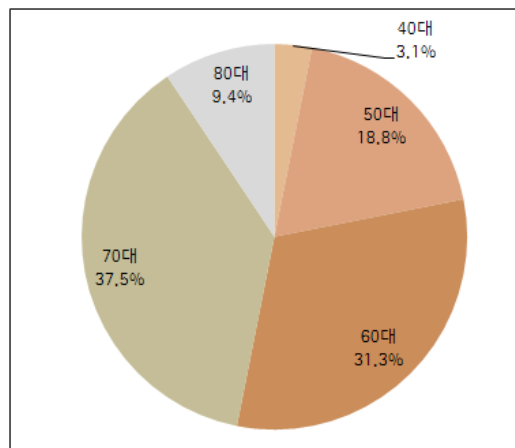
### 1) 인구 및 가구 특성

#### (1) 설문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총 32명의 설문 응답자 중 남자는 7명, 여자는 25명이었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60대와 70대가 가장 많았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구분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남성	1	1	2	2	1	7
여성	0	5	8	10	2	25
계	1	6	10	12	3	32



〈그림 1〉 A구역 설문 응답자의 연령분포

#### (2) 주민의 소득 및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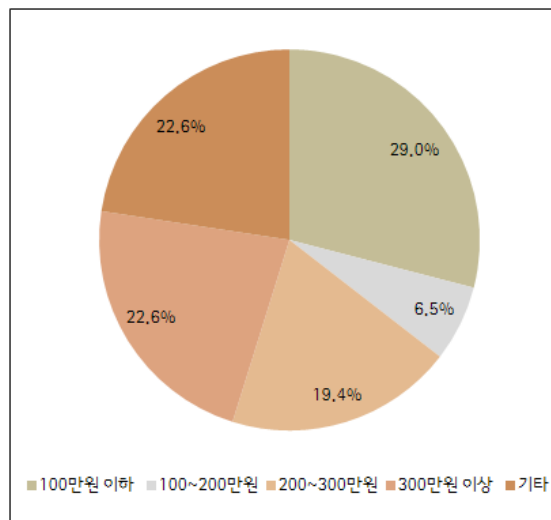
총 응답자 32명 중 28명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으며, 응답자 중 12명은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나라의 보조금을 받아 생활한다고 답하고 있다. 12명 중 자가주택 소유자가

총 9명, 전세 가구가 1명, 월세 가구가 2명으로 세입자인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자가주택 소유자이지만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9가구는 재정착을 위한 분담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설문 응답 가구의 소득수준

구분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기타	계
응답자수	9	2	6	7	8	32
비율	29,0	6,5	19,4	22,6	22,6	100,0

\* 기타의 경우 : 소득을 모르거나, 응답을 거부한 경우



〈그림 2〉 설문 응답 가구의 소득수준

설문대상자 32명 중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명으로 모두 고령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자녀의 경제적 지원과 저축해 놓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다.

설문 대상자 중 1인 가구는 총 7가구로, 60대 여성이 2가구이며 나머지 5가구는 모두 70대 여성인 독거노인가구로 나타났다. 이 중 5가구는 자가주택 소유자이나 월소득 100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 2가구는 월세주택에 거주하는 독거노인으로 각각 철학원과 음식점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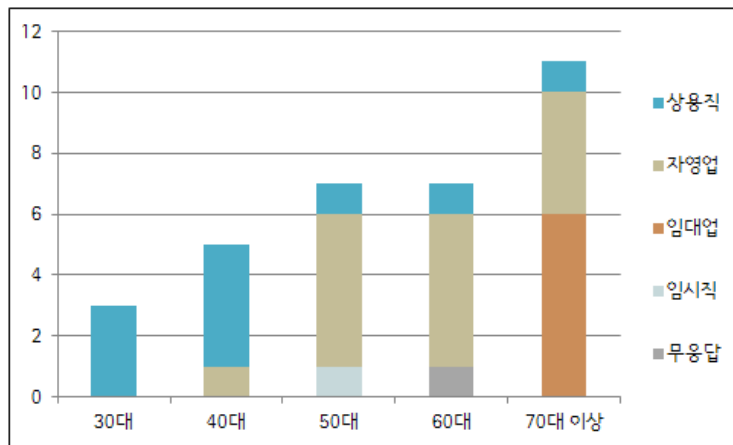
## ② 경제활동 현황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 중 경제활동을 하는지 여부와 경제활동을 할 경우 가구원의 직업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3〉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연령 및 직업 분포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상용직	3	4	1	1	1
자영업	0	1	5	5	4
임대업	0	0	0	0	6
임시직	0	0	1	0	0
무응답	0	0	0	1	0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연령층이 40대 이하인 경우는 전체의 24% 정도이며, 50대가 21%, 60대 이상이 절반 이상으로 지속적인 경제활동은 어려운 상황이다. 30대와 40대는 대부분 상용직이나, 50대와 60대는 자영업, 70대 이상은 임대업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어, 70대 이상인 경우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면 현재의 임대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어 소득원을 잃게 될 것이다.



〈그림 3〉 가구원의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

## 2)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1) 주택 현황

#### 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문제점

현재 대상지 내 20년 이상의 주택 비율은 74%이며, 1970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도 64%에 달해 노후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설문에 답한 주민 32명 중 15명은 현재 주택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하고 있어 건축물별로 어느 정도 개·보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주택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지붕의 누수 문제인데, 이는 대상지 내 건축물의 대부분이 토기와 지붕구조를 가진 도시형 한옥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대상지 내 도시형 한옥 밀집구역에 위치한 도시형 한옥주택의 출구 및 벽체 등이 일괄적으로 보수된 것으로 보여 주민에게 확인해본 결과, 주택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개·보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택의 문제점

구분	지붕 누수	난방문제	외풍	시설 노후	화장실이 없음	벽 균열	문제 없음	계
응답수	9	3	7	1	1	1	15	37
비율	24.3	8.1	18.9	2.7	2.7	2.7	40.5	100.0

## ② 주거 점유 유형

설문 응답자의 약 72%인 23명이 자가 주택 소유자이고, 9명은 세입자이다.

〈표 5〉 주거 점유 유형 현황

구분	자가	전세	월세	계
응답수	23	5	4	32
비율	71.9	15.6	12.5	100

## (2) 주거환경 측면

### ① 거주기간

대상지 내 거주기간은 2년부터 60년까지 매우 다양하고 32명의 평균 거주기간은 31년으로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해당 지역 내 거주한 기간이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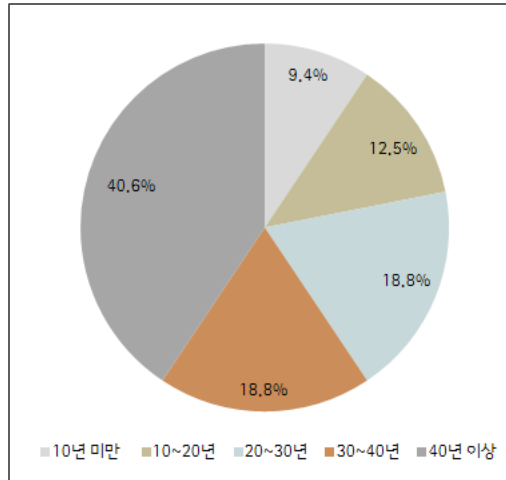
〈표 6〉 A 재개발구역의 주민 거주기간

거주기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40년	40년 이상
응답수	3	4	6	6	13

Mohan and Twigg(2007)은 거주기간이 현 거주지역 및 주택에 대한 만족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경제적인 능력의 부족으로 이주가 불가능하여 오랜 기간 거주한 것일 수도 있으며, 특히



소득이 낮은 경우 지역 및 주택에 대한 만족보다는 경제적 능력의 부족이 오랜 거주기간의 이  
유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이는 취약계층의 세입자를 위한 저렴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그림 4〉 설문 응답자의 거주 기간

## ② 지속적 거주 의사

현재 대상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은지 의사를 묻는 질문에 32명 중 1명을 제외한 응  
답자는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주 의사를 밝힌 1명은 서울 외곽의 자연환경  
이 좋은 곳으로 이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 ③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

현재 커뮤니티에 대해 전부 만족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2명이고, 불만족 사항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이 10명으로 현재 커뮤니티에 대해 절반가량의 설문 응답자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사항

부문	교통	쾌적 성	오랜 거주기간 으로 익숙함	동네사람 들과의 친밀한 관계	인근 생활편의 시설	여가활 동 공간	도심 근접성	교육 시설	모두 만족	없음	계
응답수	16	11	3	4	4	1	4	2	2	5	52
비율	30.8	21.2	5.8	7.7	7.7	1.9	7.7	3.8	3.8	9.6	100

장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사항은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주거환경이다. 현장조사 결과 A 구역은 도심과의 접근성 및 서울시 외곽으로 이동이 용이한 교통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다수의 기업체 및 대학교 셔틀버스 정류장이 대상지와 인접한 한성대 입구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성북천 복원으로 인해 대상지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낙산 공원과 가까워 좋은 자연환경 자원이 대상지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표 8〉 커뮤니티에 대한 불만족사항

구분	생활편의 시설 및 서비스 부족	사업 지연	주차 문제	부동산 가격 상승	상권 약화	도로 문제	주택 노후화로 인한 문제	사업구역 지정 후 주민 간 관계 약화	안전 문제	너무 많음.	없음	계
응답수	8	5	3	3	3	2	2	1	1	1	10	39
비율	20.5	12.8	7.7	7.7	7.7	5.1	5.1	2.6	2.6	2.6	25.6	100

현 대상지의 단점으로는 생활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제와 함께 사업지연으로 인한 문제가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생활편의시설로는 대상지 내 이용할 만한 마트와 시장이 없으며 공공에서 제공하는 주민을 위한 시설 및 공간이 없어 주민들의 모임공간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고, 설문 응답자 중 2명은 TV 수신이 안 되는 점을 불만사항이라고 대답하였다. 사업지연에 따른 문제로는 사업구역 지정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시설의 노후화 심화, 부동산 매매의 어려움 등이 있으며, 사업구역 지정 후 주민 간 의견 상충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의견도 있었다.

성북천 복원으로 주민의 여가공간이 생겨서 좋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는 반면, 대상지 내 상인들은 성북천 복원으로 상권이 약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대상지 내 40년을 거주한 80대 남성은 성북천 복원 후 교량 공사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였다. 당시 주민들은 반발이 심했는데 구청에서는 이를 강행하였고, 그 결과 공사가 지연되어 민원은 더욱 심각해지고, 공사비가 더 추가되었다. 복원 공사가 끝난 지금 교량은 잘 쓰이지도 않고 있다. A 재개발구역 정비사업도 이와 마찬가지로 결과를 낼 것이라 생각하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하였다. 2007년 성북천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삼선상가가 철거되었다.

대상지 내 30년 거주한 47세 남성은 성북천이 복원되기 전까지는 시장도 있고 유동인구도 많아서 걱정이 없었으나, 성북천이 생기면서 시장이 위축되어 살기 더 힘들어졌다고 의견을 피력하였다. 또한 이 동네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여주기 행정을 하기 위해 동네를 재개발하려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 3) 주민 간 유대감 및 커뮤니티의 결속력

#### (1) 주민 간 인지도

32명 동네 주민 중 친구 또는 인사하고 지내는 분이 몇 명인지를 질문한 결과, 동네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지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19명이며, 숫자로 대답한 경우 10~50명 정도로 주민 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up>17)</sup>

#### (2) 주민들의 모임/친교 장소

지인 또는 친구들과의 모임 장소에 대한 질문에서 각자의 집에서 모인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약 3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본인의 가게와 길 또는 산책로에서 만나는 응답자가 각각 16%로 많았다. 기타 장소로는 운동하는 곳(체육관, 성북천), 음식점, 찜질방 등이 있었다.

동네 분들과 모이는 경우 대부분 이야기를 하거나(51.2%), 음식을 함께 먹으며(술, 커피 포함, 20.9%) 시간을 보낸다고 대답을 하였다.

#### (3) 정기적인 모임 및 모임 빈도수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총 10명으로 반사회, 친목회, 계, 재개발 관련 모임이 있으며, 그 중 계모임에 참여하는 주민이 6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임 간격으로는 월1회 모임을 갖는 주민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주1회 모임이 3명, 월2회 모임이 2명으로 조사되었다.

설문 응답자들의 대상지 내 평균 거주기간은 31년으로, 오랜 기간 거주한 이유로 주민 간의 인지도가 높고 주민들 간의 교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B 재건축구역 설문조사 결과

B 재건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49명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주민설문은 인구 및 가구 특성, 주택과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 및 불만족 사항, 주민 간 유대감 및 커뮤니티 결속력 등에 대한 의견으로 구성되었다.

---

17) 설문응답자 총 32명 중 동네에 친구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1명밖에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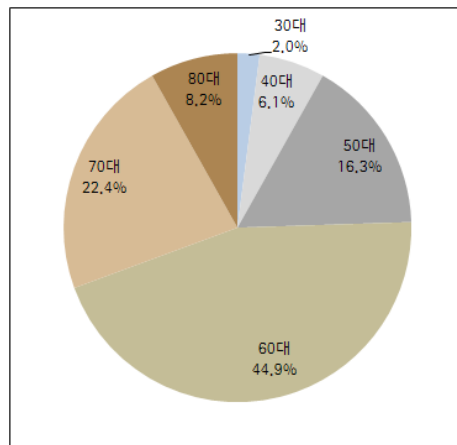
## 1) 인구 및 가구 특성

### (1) 설문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

총 49명의 설문 응답자를 중 남자는 19명, 여자는 30명이었으며 응답자의 연령은 60대와 70대가 67.3%로 가장 많았다. 이는 설문조사가 평일 낮 시간동안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30~50대의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표 1〉 설문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구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계
남	1	1	3	10	3	1	19
여	0	2	5	12	8	3	30
계	1	3	8	22	11	4	49



〈그림 1〉 설문 응답자의 성별 및 연령별 분포

응답자 1인 가구가 전체의 28.6%, 2인 가구가 전체의 32.7%로 1, 2인 가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연령이 대부분 60~70대로 독거 노인가구이거나 부부 노인가구인 경우가 많다.

〈표 2〉 응답자의 가구 규모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계
응답자수	14	16	9	7	3	49
비율	28.6	32.7	18.4	14.3	6.1	100

## (2) 주민의 소득 및 경제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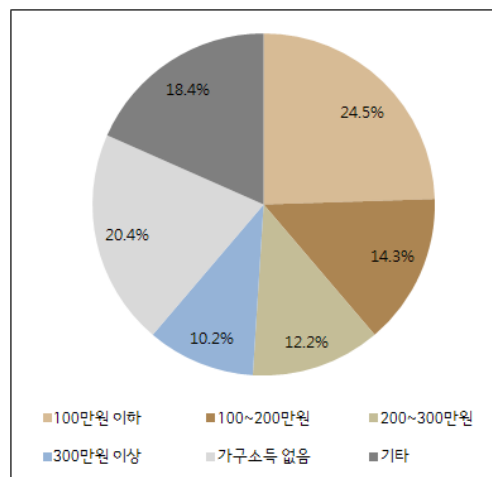
### ① 소득 수준

총 응답자 49명 중 39명은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이 있으며, 응답자 중 10명은 가구소득이 전혀 없는 자가 주택 소유자로 나라의 보조금이나 자녀들로부터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가구소득이 없는 1인 가구는 4가구로 그 중 3명은 70대 여자이고, 1명은 60대 남자로 모두 고령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상태이다. 소득이 없는 가구는 자가 주택 소유자로 재건축 사업 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만, 분담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제적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표 3〉 설문 응답 가구의 소득수준

구분	100만원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만원 이상	소득 없음	기타	계
응답수	12	7	6	5	10	9	49
비율	24.5	14.3	12.2	10.2	20.4	18.4	100

\* 기타 : 소득을 모르거나 응답을 거부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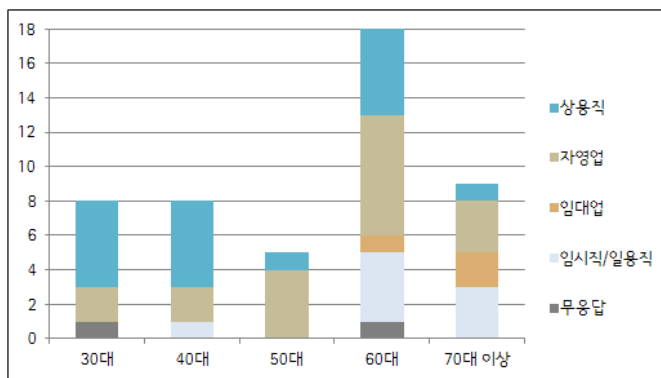


〈그림 2〉 설문 응답가구의 소득수준

## ② 경제활동 현황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가구원 중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직업에 대해 질문한 결과,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연령이 30대~50대인 경우 월급을 받는 상용직으로 일정하고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할 수 있으나, 60대와 70대 이상인 경우 자영업을 하거나 임시직/일용직의 경제활동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 불안정한 소득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12가구 중 경제활동으로 파지수거, 전단지 돌리기, 일용직 등에 종사한다고 답한 가구는 3가구이며 나머지 가구들은 미용실, 세탁소, 슈퍼 등의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림 3〉 가구원의 연령별 경제활동 현황

## 2)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

### (1) 주택 현황

#### 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문제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외풍이 세다는 점과 누수 문제, 벽체의 균열과 결로현상 등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문제점이 많다고 답한 응답자는 49명 중 1명이나, 문제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9명 중 21명으로 주택의 물리적 수준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주택의 문제점

구분	누수	난방 문제	외풍	벽체 균열 및 결로현상	일조 문제	소음, 진동 등	너무 많음	홍수 피해	문제 없음	총계
응답수	12	4	15	5	1	1	1	1	21	61
비율	19.7	6.6	24.6	8.2	1.6	1.6	1.6	1.6	34.4	100

## ② 주거 점유 유형

49명의 응답자 중 자가 주택 소유자는 33명(67.3%)이며, 전세 가구가 11명, 월세 및 사글세 가구가 3가구이다.

〈표 5〉 주거 점유 유형 현황

구분	자가	전세	월세	사글세	무허가	모름	총계
응답수	33	11	2	1	1	1	49
비율	67.3	22.4	4.1	2.0	2.0	2.0	100

## (2) 주거환경 측면

### ① 거주기간

대상지 내 거주기간은 3년부터 50년까지 매우 다양하고 49명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24년으로 설문 응답자의 대부분이 해당 지역 내 거주한 기간이 2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B 재건축구역 내 거주기간

구분	10년 미만	10~20년	20~30년	30~40년	40년 이상
응답수	6	11	10	15	7

### ② 지속적인 거주 의사

현재 대상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싶은지 의사를 묻는 질문에 49명 중 40명은 계속 거주할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였고, 이주를 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8명, 무응답은 1명으로 조사되었다.

### ③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도

커뮤니티 만족도에 대해서는 동네사람들과의 친분관계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그 다음으로는 오랜 거주기간으로 동네가 익숙하여 편하다는 답변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다. 시장, 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이 대상지 인근에 위치하여 편리하다는 대답과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가격에 대해 만족한다는 대답도 각각 14.4%와 13.3%로 높았다. 반면 응답자의 1/5에 해당하는 11명이 현재 커뮤니티에 대해 만족하는 점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표 7〉 커뮤니티에 대한 만족사항

구분	교통	자연환경	주택 가격	생활 편의 시설	오랜 거주기간으로 익숙함	동네사람 들과의 친밀한 관계	동네가 조용함	범죄가 없음	좋은 학군	없음	총계
응답수	9	10	12	13	14	18	1	1	1	11	90
비율	10.0	11.1	13.3	14.4	15.6	20.0	1.1	1.1	1.1	12.2	100

대상지 내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는 주차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설문 응답자 중 한 사람은 주차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7년간 주차위반 범칙금만 300만원을 넘게 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두 번째로 길이 좁고 경사가 급격하여 주차도 힘들고 평소에도 걸어다니기 힘들지만 눈이나 비가 오면 노인들이 다니기에 너무 위험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다. 또한 사업구역 지정으로 수리를 하지 못해 주택의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매매도 어렵다고 답하였다.

이외에 길가의 쓰레기 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동네가 지저분한 점, 주택의 동 간격이 거의 없어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점 등의 문제가 언급되었으며, 대상지 맞은편 힐스테이트 공사로 소음, 진동이 발생하여 벽에 균열이 생기고 지반이 내려앉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불평하였다.

대상지에서 가장 가까운 전철역은 1.5km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상지 북측에 접해 있는 백련산로를 따라 운행하는 버스 노선은 1개뿐이며 대상지에 속한 버스정류장도 1개소뿐이다. 새절역까지 운행하는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지 중심에서 250m 정도 떨어진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해야 하며 새절역까지 2개 노선이 운행되고 있다.

커뮤니티의 불만족 사항이 너무 많다고 대답한 사람은 1명이며, 불만족 사항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은 19명이다.

〈표 8〉 커뮤니티에 대한 불만족사항

구분	주차 문제	불편한 대중교통	쓰레기 문제	도로문 제	일조, 소음 문제	사업구역 지정에 의한 문제	주택 노후화	너무 많음	없음	모름	총계
응답수	17	5	3	14	2	8	3	1	19	1	73
비율	23.3	6.8	4.1	19.2	2.7	11.0	4.1	1.4	26.0	1.4	100



### 3) 주민 간 유대감 및 커뮤니티의 결속력

#### (1) 주민 간 인지도

##### ○동네의 친구 및 지인

동네 지인분들에 대해서는 ‘동네 사람들을 거의 다 안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2명(44.9%)이며, 숫자로 답을 주신 응답자(18명)도 3~70명 정도로 동네 분들 간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몇 명 안 된다고 응답한 사람은 3명이고 동네 분들과 교류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49명 중 7명으로 주민의 대부분은 서로 알고 지내는 것으로 보인다.

##### ○주민들의 모임/친교 장소

동네 지인들 간의 모임에 대해서는 대상지 내 위치한 영업장/가게에서 만난다는 응답이 첫 번째로 높았으며, 각자의 집에서 돌아가면서 만난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 장소로는 길과 산책로 등 밖에서 만난다는 답변과 교회, 성당 등의 종교시설에서 만난다는 답변도 있었다.

동네에 지인 분들은 많으나 모임을 갖지 않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네 분들과 모임을 갖는 경우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22명), 모여서 음식을 해먹거나 커피 등을 마시는 응답자가 그다음으로 많았다(9명).

##### ○정기적인 모임 및 모임 빈도수

정기적인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총 14명으로 반상회(2명), 계모임(3명), 친목회(7명), 재개발 관련 모임(2명)이 있으며, 그 중 주민 간 친목모임에 참여하는 주민이 7명으로 가장 많았다. 모임 간격으로는 월1회 모임을 갖는 주민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는 주1회 모임이 2명, 월2회 모임이 3명으로 조사되었다.